



“ 國家와 社會서 더 큰 關心을
 大學교수 연구活性化 위해 ”

당뇨병 退治에 평생바친

金 應 振 박사

〈서울대 명예교수/을지병원 의무원장〉

대담 / 朴 澤 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 편집위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당뇨병 색출검사(screening test)를 실시하여 당뇨병 이환실태를 점검하고 예방 및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의 열기왕성한 모습을 대하니 마음 든든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대한당뇨병학회 초대 및 2대회장을 지내시고 명예회장으로 계시는데 이 학회 20년사에 실린 선생님의 회고담을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로서의 소명의식에 대해 특히 강조하셨던데요...

네, 회고담의 일부를 소개해보면 『네 소원이 무엇이나 하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치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나 물으시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나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애국자인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큰 평생소원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날이나 지금에도 변함없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젊은 의학도들의 소원은 낙후한 우리나라 의학을 하루빨리 발전시키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 세계 선진국의 의학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

어 보는 일이라 믿어요. 이것이 곧 학문으로써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 확신하면서 내 평생소원도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전에는 우리나라에 당뇨병환자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옛날에 당뇨병에 관심을 갖게 되신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68년 당뇨병학회 창립

내가 당뇨병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59년에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 부터이지요. 그 당시만 해도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매우 드물어서 당뇨병을 희귀한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쩌다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임상강의' 용의 증례가 되는 정도였으니까요. 요즘처럼 소아 당뇨병환자까지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요.

그런데 미네소타대학 의료원에서 입원한 당뇨병환자들중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킨 경우를 많이 보았고 이 대학 당뇨병클리닉에서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 발생빈도가 높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소화기병학에서 당뇨병학으로 바꾸었습니다.

60년 미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시내 각 병원의 내과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뇨병 색출검사를 수개월에 걸쳐 실시했어요.

이 색출검사로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비율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56년에 총환자수대비 0.4%에서 61년에는 0.75%로 유병비율이 높아졌어요. 당뇨병의 식요법에 관한 책자도 발간하게 되었으며 방노병의 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의학계에서 당뇨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자 68년 10월에 당뇨병 학회가 창설되어 내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하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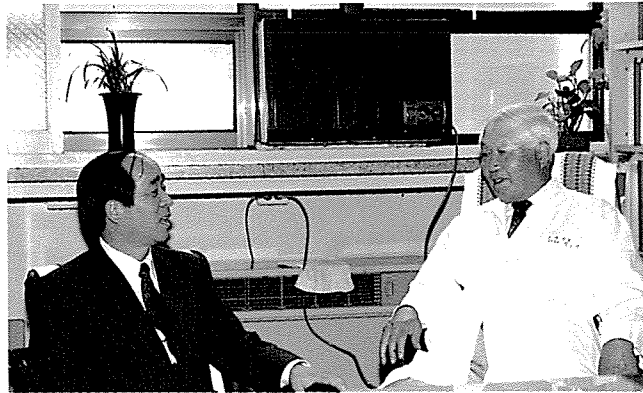
참고로 당뇨병치료의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운동 요법이 기본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당뇨병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유전적 요인, 생활양식 및 사회상에 따르는 특성이 있지요. WHO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당뇨병환자 5~6%중 절반이 현성(顯性)

이고 나머지 반이 숨어있는 잠복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비교적 적지만 성인들의 경우 12~13% 수준이고 특히 비만중인 경우 4명중의 1명은 당뇨병에 걸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뇨병 치료는 식요법과 운동요법이 기본이고 둘째로 내복 혈당강하제 투여(중증인 경우 인슐린 증산방법),



◇평생을 당뇨병의 예방 및 진료에 헌신해 온 김용진박사(우측)가 박태규 본지 편집위원장과 대담하고 있다.

그 다음이 인슐린 요법(심해지면 인슐린 보충방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뇨병클리닉을 운영하여 환자 스스로 집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일 또한 중요하지요. 당뇨병은 환자가 많으므로 일종의 국민병이라는 차원에서 환자의 예방 및 치료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핵약은 2~3년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반해 일생동안 치료해야 할 당뇨병환자의 약은 경구 및 주사약 모두가 외제로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서 매우 비싼 실정이지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 화제를 바꾸어서 어릴적 이야기, 그리고 대학생활 등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경성의전 수석합격

1916년 1월 평양시 기림리 184번지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5남매 중 3남으로 태어나서 6년제 송덕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1929년 14세때 송실중학교(5년제)에 무시험합격하고 재학중에는 광주학생 사건때 평양 시내에서의

만세운동에도 참가했어요. 19세때인 35년에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수석합격의 영광을 차지했지요.

대학시절 운동을 좋아해서 여름에는 축구, 겨울에는 아이스하키를 즐겼어요. 또한 1937년과 38년 경성의전 축구선수로 일본원정 2회 우승, 38년 경성의전 아이스하키선수로 국내대회에서 첫우승, 일선만(日鮮滿) 빙상대회에 조선대표로 출전하는 등 만능운동선수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특히 환자들에게 테니스를 권유하는 의사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새도 계속 테니스를 치십니까?

테니스는 30년간 계속

일찍이 테니스를 시작하여 학내에서는 테니스클럽, 학외에서는 전국외대

생대회와 의사대회를 창설하여 건전한 스포츠를 통한 의사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하였지요.

69년 아이스하키 대학선발팀 단장으로 일본 원정, 69년 한국주니어테니스 대표팀단장으로 미국 마이애미대회 출전, 75년 소련 모스크바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팀닥터 등 스포츠과학진흥에도 관심을 가졌지요. 약 35년간 산업은행의 촉탁의사로 관계한 인연으로 산암테니스클럽(산은 안암동코트 약칭) 회원이 되어서 1주일에 2회 정도 테니스를 칩니다. 서울대 이순(耳順)동문 테니스회(60세 이상 현직 및 퇴직 교수모임)를 1년에 2~3회 하지요. 골프도 한달에 2~3회 합니다.

선생님 가족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6.25때 단신으로 越南

당시로서는 만혼인 26세 때 5년 차이인 의대 친구동생과 결혼했습니다.

91년에 금혼을 맞은 우리부부사이에는(부인 元英珠, 73세) 2남1녀가 있지요. 45년 8.15해방직후 신의주도립병원 내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그해 11월 3.8선을 통해 단신 월남했습니다.

장남 永健(51·충남대 의과대학 내과학교수, 현보건대학원장) 차남 永斌(48·서울상대졸·회사이사), 장녀 素淨(46·이대음대졸·일본거주)과 슬하에 친손, 외손 합해서 6명이 있는데 모두가 남매를 두고 있어요.

선생님께서서는 1946년 서울대 강사를 시작으로 65년 정교수를 거치면서 81년 정년퇴직때까지 줄곧 서울대학교 내과학교실을 이끌어 오셨지요.

정년후엔 을지병원장 역임

6.25를 거치는 동안 서울대 내과학교실을 계속 지키면서 은사이신 김동익선생님을 모시고 서울대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였어요. 서울대를 정년퇴직한 후 81년에 을지병원 내과부장직을 맡게 되었고 그 다음해에 병원장을 지냈고 현재 의무원장으로 봉직하면서 당뇨병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있어요. 66년 소화기병학회장, 69년 대한내과학회장, 그리고 68년 대한당뇨병학회의 창립은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일 당뇨병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몇분의 교수들과 함께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55년 3월에 해방전에 이미 완성해두었던 망막반응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선생님께서서는 사비로 설원(雪園)연구기금을 조성해서 의학연구를 지원하고 계신데 설원(雪園)의 뜻부터...

私費로 의학연구지원

내 아호인데요. 흰눈(흰 가운)은 의사를 상징하며 흰색은 평화, 무에, 평등을 의미하지요. 81년 서울대를 정년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저서 「당뇨병과 그 치료」의 인세를 포함한 책값 중 8천여만원으로 후학들의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성된 기금입니다.

연구비 신청자 가운데 1~2명을 선정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대 제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에서도 3~4년간 익명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건강비결과 함께 인생관을 말

씀해 주십시오.

나의 건강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산책하거나 테니스를 치는데 요새는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금연하는 것, 그리고 물욕이 없는 것,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이 건강유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관, 좌우명이라면 眞, 善, 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하게, 선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좌우명은 眞·善·勉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재산을 자식에게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연구비지원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건물이름도 기증한 사람의 이름으로 명명해서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재간도 매우 좋기 때문에 뒷받침만 잘해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수들의 연구여건 조성에 국가적·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져야 해요. 과학기술발달이 국가발전의 요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당뇨병의 예방, 치료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신 선생님의 공적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건강속에 더 큰 보람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